

研究論文

# 이산의 체험과 디아스포라의 언어: 해외입양인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유진월

한서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jinwol@hanseo.ac.kr

- I. 서론
- II. 본론
- III. 결론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KRF-2008-327-A00444).

## I. 서론

디아스포라(diaspora)는 본래 그리스인들의 이주와 식민지 건설을 의미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였으나 나중에는 팔레스타인 밖에서 흩어져 거주하는 유대인 혹은 그 거주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 의미가 더 확장되어 현재는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국외로 추방된 소수 집단 공동체’라는 샤프란의 정의를 비롯해서 ‘한 기원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둘 이상의 외국으로 분산된 것, 정치적, 경제적, 기타 압박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으로 모국을 떠난 것, 고유한 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족에 대해 애착과 연대감을 갖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것, 모국과의 유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sup>1)</sup>’ 등으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보면 구한말부터 중국, 러시아, 하와이로 이주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500만 명 이상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그 중 해외입양인은 16만 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에서는 해외입양인을 디아스포라로 다루거나 논의하지 않았<sup>2)</sup>다. 해외입양은 1953년 전쟁고아의 입양이 시작된 이후 5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세계 경제규모 11위인 현재까지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세계 4위의 고아수출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이 입양되었으며 문학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펼치는 작가들 또한 여성이다. 본 연구는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의 일환으로 해외 여성 입양인의 문학을 연구하고자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를 보면 1958년 이후 2008년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 보낸 아이는 16만 1,558명이다. 미국에 10만 8,222명, 프랑스에 1만 1,165명, 스웨덴에 9,297명, 덴마크에 8,702명<sup>3)</sup> 순이다. 미국과 유럽의 백인사회에서 황인종 아동들이 겪은 정체성의 고통과 혼란은

1)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5-7쪽.

2) 토비아스 휘비네트, 뿌리의 집 역, 『해외입양과 한국 민족주의』(소나무, 2008), 23쪽.

3) 『한겨레21』, 2009. 5. 18, 50쪽.

국가의 국민 보호 의식의 방기, 매년 100억 원 이상이 넘는 입양기관의 수익, 완고한 가부장제도와 단일민족이라는 허울 좋은 혈연주의 등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부조리에 의해 묻혀졌다. 그 동안 해외입양 제도에 대해서 간간이 반성이 있기도 했으나 그것도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었을 뿐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입양아와 생모들의 고통은 간과되어 왔다. 해외입양을 중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계속 미루어졌고 여전히 매년 2천여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50년대에 입양된 사람들은 이미 40, 50대의 중년이 되었으며 유럽으로 입양된 70, 80년대 출생자들도 30대에서 40대에 분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택하는 것은 이미 성인이 된 이들의 창작활동과 그 결과물이므로 무심코 통용되는 입양아(adoptee child)라는 용어 대신 '입양인(adult adopte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절대약자로서 유아기 혹은 유년기에 강제적으로 추방당해 가족 해체와 상실을 체험하고 인종과 국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성장한 해외 입양인들은 이제 각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의 예술은 백인 서구사회에서 '아시아/유색인종/어린이/여성'이라는 다층적 억압이 중첩된 타자로 살아온 삶과 의식의 반영물이다. 해외입양인들의 삶은 한국의 가부장 사회가 남성 부재의 여성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여주며 그들의 문학은 여성들이 체험해야 하는 혹독한 정체성 확인과정에 대한 치열한 노정을 담고 있다. 기존 장르의 틀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고정된 문학 양식이나 기법에서도 자유로운 이들의 문학은 그들의 복잡다단한 의식과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이들 문학의 디아스포라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디아스포라적 체험이 녹아든 이 문학 작품들은 때때로 외국에서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밀어낸 소위 모국에서 흥밋거리로 다루어질 뿐 진정한 연구의 대상이 되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양인 문학연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으로 입양된 제인 정 트렌카, 케이티 로빈슨, 김순애, 신선영과 유럽으로 입양된 미희 나탈리 르무안느, 아스트리드 트롯찌, 쉰네 순 뢰에스, 마야 리 랑그바드 등 여덟 명의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에서 출간된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택하였지만 시를 포함시키려는 의도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국내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선영과 마야 리 랑그바드의 국내 미출간 시집을 연구대상<sup>4)</sup>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대체로 현재 30세에서 40세의 여성들<sup>5)</sup>이며 연구대상 작품들은 주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던 2000년대에 발표된 것들이다.

## II. 본론

### 1. 기억과 애도, 슬픔의 정치학

제3세계에서 서구로 밀려들어온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로서 해외입양인들은 제국 안에서 또 하나의 제3세계 곧 내부 식민지를 형성<sup>6)</sup>하게 된다. 이는 곧 내부의 이방인이라는 관점과 동일한 것으로 해외입양인들은 자기를 밀어낸 제3세계의 상처를 안고 제1세계 내에서 살면서 이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디아스포라 곧 이산자아가 된다. 인간이 본래적인 자아와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유한 내면성으로의 회귀와 현재에 대한 집요한 주의집중에 따른 기억이 필수적이다. 이산자아로서의 해외입양인들은 가장 먼저 이러한 기억으로의 회귀로부터 자신의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초기 작품이 대개 자전적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내러티브로 풀어내려는 이러한 시도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것의 의미를 현재에 되살리는 대항기억으로서의 회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상은 여성의 현실인식을 위한 첫 번째 사유의 계기가 된다. 회상한다는 것은 지배와 억압으로 인한 고통의 역사를 현재의 맥락에서 회상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sup>8)</sup>로 한다. 회상의

4) 연구대상 작품은 참고문헌 참조.

5) 이들은 주로 한국의 근대화 및 서구화가 급속하게 시작된 70년대생으로 50년대 전쟁으로 시작된 1세대 입양인들과 구분된다. 고통을 인내하고 운명에 순응하려는 경향과 한의 정서에 젖어 있는 전쟁고아들과는 달리 서구적 교육을 받은 인텔리 여성들로 자신의 문제를 사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작가들이다.

6) 태혜숙, 「전지구화, 이산, 민족에 관하여」, 『여/성이론』 9호(2003), 14쪽.

7) 노성숙, 『사이렌과 침묵의 노래』(여이연, 2008), 34쪽.

8) 노성숙, 앞의 책, 100-102쪽.

주체로서의 여성은 희생되고 억제되었던 내면의 회복만이 아니라 남성중심적 이성애에 의해 지배되고 대상화되었던 자기 소외의 역사를 거스르는 흔적 찾기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여성의 이야기하기가 갖는 치유와 보호의 힘으로 여성들 사이의 유대와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해외입양인 여성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적 행위가 된다.

### 1) 유색인종/입양인/여성

제인 정 트렌키는 “대학시절 나는 모든 서류에 백인이라고 체크했다”<sup>9)</sup>고 한다. ‘진짜 이유는 한국인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기 때문이고 자기기만적인 이유로는 외적인 것(한국인의 몸)보다 내적인 것(미국인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화적으로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으로 체크했지만 수강신청서는 ‘아시아 - 태평양군도인’으로 정정되어 돌아왔다는 고백은 입양인의 자아 인식과 그가 속한 세계와의 거리를 보여준다. 미국인이지만 언제나 유색여성이며 백인사회의 불청객이자 주변적 존재로 타자화된다. 인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당되고 배치된다<sup>10)</sup>는 주장도 있지만 대체로 인종적 차이는 주체 형성에 쉽게 선행한다.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호명에 의해 수치와 비참이 강조되고 억압의 역사는 지속된다. ‘바나나’와 같은 혐오발화로 불리는 주체는 치욕스러움을 느끼고 상처받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인이라는 비체로서의 호명을 거부한다. 백인 스토커로 대표되는 혐오발화의 발화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패싱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해지지만 백인 사회로 완전히 수용될 수는 없다.

국적의 혼란스러움은 제3세계의 인종과 제1세계의 국적 사이에서 어디에도 명확하게 속할 수 없는 이산자아의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하여 국가에 대한 애증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아스트리드 트룟씨는 “난 스웨덴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다. 아니, 스웨덴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닌지 모르겠다. 어중간한 그 어디에 있는 나. 반은 스웨덴 사람이고 반은 한국 사람인가.” “스웨덴에 있어도 완전한 스웨덴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한국에 있어도 완전한 한국사람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9) 따옴표로 묶은 구절은 모두 연구대상 작품에서 인용한 부분으로 쪽수를 일일이 표시하지 않음.

10) 주디스 버틀러는 인종은 섹슈얼리티, 젠더와 마찬가지로 본질화, 정체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여이연, 2006), 147쪽.

는 부유하는 존재로서의 갈등을 보여준다. “나는 동양인이예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나는 미국인이고 오랫동안 유럽에서 살아왔지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김순애는 한국인/미국인/유럽인 사이를 오가는 경계인적 존재로서의 이산자아를 보여준다. 마야는 아예 자신과 입양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1. 당신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가. 덴마크인? 나. 한국인? 다. 덴마크인이고 한국인? 라. 덴마크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다?”

해외입양인 문학은 국가에 의해 포기되고 방출된 여성들의 삶, 곧 제3세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그들의 삶을 문제적인 상황으로 밀어낸 남성들이 침묵하는 동안 자신들의 아픔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쓰고 있는 해외입양인 여성들은 저항하는 주체가 된다. 백인사회에서 그들의 문화를 체화하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지만 언제나 낮은 타자로서 소외되어야 했던 상처받은 유색인종/입양인/여성<sup>11)</sup>은 한국에서 외모의 동질성만으로도 동화되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내게 마침 남대문시장에서 검은 머리카락의 군중 속으로 슬쩍 빠져나갈 기회가 생겼다. 아무도 나를 낮설어하지 않았다. 진짜 한국인이 된 기분을 즐기며 적어도 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한국인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다시 한국인이 되어 내 모국의 뱃속에서 살아 있음을 느끼는 가슴 떨리는 기분이었다”는 제인의 체험은 자신을 아웃사이더의 삶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조국 안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이율배반적 체험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입양인들이 조국과 기꺼이 화해하는 것은 아니다. 원네는 자신의 한국어 번역본에 이렇게 쓰고 있다. “본의 아니게 떠난 나라에 진심을 담아 작은 인사를 보내게 되어 기쁘다.” 이 짧은 인사말은 화자의 갈등과 고통을 그대로 드러낸다. 자신을 강제로 밀어낸 나라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언어로 인사를 하게 된 현실 앞에서 진심을 전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위태로운 경계선상의 삶을 접경지대의 삶으로 변화시킨 저항적 주체로 성장한 여성/작가로서 원네는 침착하게 인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언어의 문제로 이어진다.

11) 스피박은 인간주체를 성/계급/인종의 세 가지 요인들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는 해외입양인 여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 2) 언어고아의 모어 찾기

해외입양인들에게 서양의 언어는 모국에 대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양부의 언어인 반면, 모국의 언어는 발음할 수도 없는 '갈라진 언어이자 부서진 언어'<sup>12)</sup>이다. 결국 이산자아는 언어적 뿌리의 상실로 인한 존재론적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이들의 디아스포라적 글쓰기와 그 산물은 당연히 민족과 이산의 문제를 쟁점화하는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신선영은 한글 자모를 모두 시적 대상이자 주제로 삼아 진지하게 탐구한다. 발음할 수도 없는 낯선 그 글자들은 일종의 그림이자 기호이며 탐색의 대상이 되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과 개인적 역사 안에서 부서지고 재구성된다. 책에서 얻은 지식들, 예컨대 한글 창제에 관한 사항들과 알타이어라는 언어의 계보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독서와 사색과 상상 안에서 한글 자모는 전혀 새로운 의미들로 다시 태어난다. ㄱ은 '더럽혀지고 거친 당신 연인의 무릎'이며 '절벽'이며 '낯'이고 '실루엣으로 드러나는 반쪽의 의자'이다. 한국어를 배울 때 흔히 떠올리는 강, 교실, 가지 등과 같은 단어들이 시인의 기억 안에는 없다. ㄴ의 경우는 한국/한국어와는 관계없는 미노타우로스 이야기와 그의 미로에서 탈출한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의 신화 세계로 연결되는 식이다. 불가해한 언어이자 낯선 현실인 한글 자모는 영어권 시인에 의해 그림이 되고 상징이 되고 신화가 된다.

“이제 한국어로 내 책이 출간된다. 한국어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언어. 그러나 말할 수도, 읽을 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이다. 아마도 한국어로 씌어진 이 책을 읽을 수도 없으리라”는 아스트리드의 말에는 제3세계 출신 여성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제1세계의 언어를 빌어 말해야 하는 이산자아의 갈등과, 그것이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는 모국의 언어로 번역됨으로써 두 겹의 소외와 이중적 정체성을 경험해야 하는 혼란이 들어 있다.

이러한 언어로부터의 소외는 가족과의 재회 상황에서도 반복된다. “제 이름은 경아입니다” / “아이 리브 유 경아.” 딸과 어머니는 이방의 언어 중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한마디 말로 서로에게 화해의 손을 내민다. 이들의 문학에서 모녀관계는 매우 근원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숙해진 그들은 이성적으로는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12) 임진희, 「한국계 미국 여성문학에 나타난 포스트식민적 이산의 미학」, 『여/성이론』 9호(2003). 244쪽.

말하면서도 왜 자기를 버렸을까에 대한 반복되는 질문과 거기서 비롯되는 상처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도, 가족을 돌보지 않는 폭력남편, 아들선호사상, 경제력이 없는 여성, 순결에 대한 강박관념, 가족의 해체, 사회의 제도적 무관심 등은 딸들의 입양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때 가족제도는 남성에게 여성을 교환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여성억압기제<sup>13)</sup>이다. 이런 가족제도는 언제나 남성을 우선시하며 여아는 상대적으로 쉽게 포기된다. 남성/사회는 아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진 듯 여성/가족으로 하여금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제했던 것이다. 오해와 불신과 갈등을 거쳐 마침내 생모와의 화해에 도달하는 제인은 비로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당신의 몸과 당신의 심장을 이어받은 딸이라는 것을, 내 속에 흐르는 피의 언어로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외모뿐 아니라 보고 배운 듯 흡사한 여러 가지 성향들은 모녀의 몸에서 몸으로 피의 언어를 통해 전해지고 긴 세월의 공백을 건너뛰어 소통을 가능케 하고 있다.

가족을 만나면서 비로소 자기의 진짜 이름과 발음과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이름 안에 담긴 부모의 소망을 알게 되면서 자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아스트리드의 “한국에서는 성을 먼저 쓴다는 것도 모르는 양부모들도 있다. 내가 아는 한국에서 온 입양아들 중에는 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몇 명 있다”는 말처럼 김순애도 ‘김’이라 불리는 여자다. 부모가 아니라 경찰이나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을 가진 이들도 많아서 이름을 기반으로 가족을 찾는 일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모를 찾고 이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은 자아찾기와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

아스트리드는 “박서여. 이걸 한국이 내게 준 이름이다. 너무 미운 이름이다. 쓰기도 어렵다. 아무도 이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낫설기만 한 내 이름, 아직까지도 내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 그래서 입에 올리기도 꺼리게 되지. 그래도 내 이름이지 않은가” 하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낫선 이름의 수용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 발음할 수도 없고 뜻도 알 수 없는 이름과

---

13) 노승희, 「접경시대 여성의 몸」, 『여/성이론』 9호(여이연, 2003), 40쪽.



자신을 연결시키는 일은 제1세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제3세계 출신 여성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표출한다. 그러나 거부와 수용의 기로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자신의 삶이 시작된 그 지점을 포기하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하루 전만 해도 나는 서울에서 살던 김지윤이었다가 바로 다음날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캐서린 진 로빈슨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라는 케이티 로빈슨의 고백은 무기력하게 경계선상에 선 어린이/여성/타자로서 해외 입양인의 첫 번째 갈등을 보여준다.

모국어와의 완전한 단절은 침묵에의 강요이다. 제국의 언어로만 말하도록 강제되고 모국어를 전혀 말할 수 없는 이 이산자들은 그 어려움을 나름의 방식으로 극복하는 지혜와 의지를 보여준다. 예컨대 오랫동안 자기 이름을 발음할 줄도 몰랐던 조미희는 발견 당시의 이름이었던 조미희, 벨기에에 와서 생긴 이름 미희 나탈리 르무안느, 생모를 만난 뒤 생긴 이름 김별 등 이름이 세 개나 된다. 이 혼란스러운 삶의 흔적 앞에서 그녀는 '남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세 개나 되는 풍요로움'이라고 말한다. 힘겨운 삶을 위트와 유머로 변화시킬 수 있는 태도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 내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된 당당한 여성상을 보여준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유럽인도 한국인도 아닌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다. 양쪽의 경계에 선 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제 나는 한국인이기도 하고 유럽인이기도 하며 이 모두를 포함한 세계인이기도 하다. 마침내 언어낸 존재의 풍요로움이다' 해외입양인들의 권익증진과 비자법 개선, 고국과의 연계 등을 위해 일하는 액티비스트이자 화가이자 비디오 아티스트인 조미희의 경계인으로서의 삶과 예술은 이산자이로서 해외입양인의 최전선에 선 행동주의자를 보여준다.

제인은 결혼하게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혼인 확인서 앞에서 자신의 생의 의미를 정리할 기회를 갖는다. "정경아, 아니면 경아 정? 제인 마리 브라우어, 제인 마리 트렌카, 제인 브라우어 트렌카, 제인 경아 정 브라우어 트렌카, 결국 나는 세 가족 - 한국 가족, 미국 가족, 마크의 가족 - 으로부터 각기 이름 한 자씩을 따온 것으로 결정한다. 제인 정 트렌카. 나는 현실을 반영해 만든 이 이름을 상처처럼, 신분증처럼 지니고 다닌다." 이러한 고백은 그 여러 개의 이름들 중에서 출생, 성장, 결혼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구별하고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요약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들에게 이름을 확정하는 일은 궁극적인 정체성의 출발이자 완결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3) 고통의 극복과 '어우러짐'

해외입양인은 남성의 보호가 없는 가난한 여성의 자녀이며 국가와 사회에 의해 밀려난 자이며 국가경제에 외화벌이로 기여한 자이며 이질적 문화 환경에서 차별받은 소수자이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저항적 인간이며 자신을 버린 부모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숙한 인격자이며 고난을 이겨낸 성공자라는 다층적 위치를 한몸에 담고 있는 매우 복잡한 인격체이다. 전자에서 후자로의 이행과정에서 여성주체들은 깊은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을 갖는다.

아스트리드는 “한 번 버려진 적이 있는 사람이 가진 두려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칭찬을 받아야만 한다는 강박감. 출생지에도 불구하고 생긴 모양새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입양아임에도 불구하고 꽤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 제일 잘해야만 되는 것. 절대 실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자신을 억압하던 강박관념에 관해 썼다. 심지어는 “덴마크의 신나치주의를 표방하는 당에 관한 프로그램에서는 입양인들은 강제불임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양아들의 피가 점점 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강제불임을 시켜야 한다”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 백인들의 세계에서 유색인종으로서 살아가는 일의 어려움은 심리적인 억압이 되어 “난 스킨헤드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내가 자살을 하도록 몰아세운다. 난 절벽에 몸을 던진다”와 같은 비극적인 꿈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제인 또한 “난 다시 가게로 돌려보내질지도 몰라. 나보다 더 착하고 철이 든 아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따위는 하지 않는 아이와 교환될지도 몰라. 한국 어머니에 이어 미국 어머니까지 나를 버린다면 다시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원치 않을 거야”라고 말하며 어린 시절 되돌려 보내지는 두려움을 가졌다고 고백한다. “우리 자매의 곁을 엄마가 낳은 적도 없는 친자식이 유령처럼 따라다니게 되었다. 핑크빛 피부에 엄마의 아름다운

푸른 눈과 아빠의 익살스런 미소를 빼닮은 사내아이”처럼 자신이 백인 아이를 대체하고 있을 뿐이라는 자괴감을 가지고 살았다. 아시아 남자와 데이트 하는 것을 싫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 또한 그토록 아버지가 꺼려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고통은 자신을 괴롭히는 요소이지만 입양인 여성들은 바로 그 고통과 직면해야 할 주체이다. 고통을 주관적 영역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억압하며 참는 대신 외부로 객관화시켜 아픔의 원인을 초래한 세계에 대해 말하고 변화를 요구하며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입양인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들은 그러한 주체화 및 실천의 과정으로 연결되고 있다. 입양은 개인에 국한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공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인의 “이 책이 한 개인과 한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인의 집단적 경험의 일부로 읽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나아가 모든 주체와 객체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서열과 충돌의 관계를 철폐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새로운 형상으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우러짐’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될 수 있다. 여성은 주체로서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고 다른 존재들과의 어우러짐<sup>14)</sup> 속에서 새로운 사태를 만들어내며 그 안에서 고유한 역사성을 깨닫고 의미를 해석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곧 여성 입양인들은 자신의 슬픔이나 고통과 직면하여 그것을 객관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모/양모와, 과거/현재/미래와 제1세계/제3세계와 백인/유색인과 남성/여성 등의 다양한 주체와 타자들과의 어우러짐을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여성 입양인들은 진정한 주체로 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슬픔은 우리를 탈정치화시키고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빨리 극복해야 하는 감정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픔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성을 갖는다.<sup>15)</sup> ‘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언제나 슬픔과 상실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슬픔을 표출하도록 하는 것은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함으로써 타자와 상호 의존하는 긍정적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14) 노성숙, 앞의 책, 112-115쪽.

15) 임옥희, 앞의 책, 256쪽.

것이다.

#### 4) 이산자아에서 독립적 여성으로의 변모

제인은 '왕나비는 5,000킬로미터 가까이 날 수 있다. 아주 긴 여정이다. 그렇게 날고 나면 날개가 찢어지거나 너털너털해진다. 그들이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건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왕나비를 통해 고향을 찾아가는 긴 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왕나비의 절실한 여정은 자신의 생모 찾기 및 글쓰기 과정과 동일하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붙여 한 가족의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과정은 기억과 상상의 새로운 쿼트를 만드는 작업이며 한 땀 한 땀이 애도의 작업'이 된다. 제인은 특히 글쓰기의 과정에서 동화, 연극, 코미디, 뮤지컬을 간간히 사용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극적인 체험을 무대화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인식하려는 의도 및 입양 자체에 대한 풍자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제1세계에서 입양인들은 자기를 떠나보낸 제3세계로 돌아와 부모와 가족을 만나고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제1세계로 돌아가는 경로를 밟는다.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이후이므로 내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 나는 인습에서 해방된 페미니스트이며 능력 있는 미국여성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근거하여 스스로를 규정짓는다. 내 외모가 아닌, 내게 일어난 사건도 아닌, 특히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아닌, 오직 내가 성취해 가는 일만이 내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 나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제하는 인간이다라는 제인의 말처럼 자존감 넘치는 자기를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조미희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완전한 한국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55퍼센트 한국인이라 부른다."

자서전이자 요리책이기도 한 『서른 살의 레시피』에서 부유한 사업가의 연인으로 행복하고도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하는 김순애는 여성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넘치듯 사랑을 주는 남자에게서 공허함을 느낀 그녀는 사랑에 연연하는 여자에서 독립적 여성으로 변모한다. 연인의 별명인 풍요 속에서도 굶어죽어야 했던 마이더스라는 것은 그들 관계의 본질을 보여준다. 자신의 백인 아내는 그냥 '여자'이고 순애는 '동양여자'로 보는

그는 오리엔탈리즘에 젖어 있는 서양/남자이다. 그의 관점으로는 동양/여성 순종적이고 수동적이어서 후진성과 관능미를 갖고 있는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이고 결국 정복해야 하고 정복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하다. 상대적 우위를 점유한 그는 그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노력이 없는 것은 물론 그녀를 자기와 동등한 인간이 아닌 인형으로 대하면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 있다. 그녀는 그가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며 그에 따른 도덕적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는다라는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을 억압해 왔음을 깨닫는 순간 그를 떠난다.

음식이란 그것을 요리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며 그것을 먹던 사람들과의 관계이며 몸으로 체험하는 매우 구체적인 삶이다. 그 삶의 흔적이 기록된 김순애의 레시피는 온통 서양 요리들로 넘쳐난다. 한국인이 알 수 없는 요리 이름과 식재료들과 요리법과 조리기구들은 이산자이로서의 그녀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의 거리감은 한국/한국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호텔에서 백인 남자를 따라 온 창녀 취급을 받아야 했던 충격적인 경험과 연결된다.

‘나에게는 땅이 없다는, 나만의 역사가 없다는 깨달음에 흠칫 놀란다. 과거가 없다면 어떻게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단 말인가.’ ‘난 가족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내 진짜 이름도 몰라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는 ‘내 인생에는 뭔가 빠져 있어요’라고 말하게 하고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보고 싶지만 ‘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거기에 나를 기다리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가기가 두렵다. 거기서 내가 뭐라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렵다. 아니면 그 반대거나라며 이율배반적인 혼란에 빠진다. 이산문학의 핵심은 이 혼란에 빠진 이산자아가 어떻게 제1세계에서 가려진 기억을 총체적으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김순애는 글쓰기를 통해 기억의 회복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충만해진다.

## 2. 새로운 말하기/글쓰기의 모색

### 1) 원네-접경지대의 위반적 주제

원네 순 뢰에스<sup>16)</sup>의 소설 『아침으로 꽃다발 먹기』는 기존 소설의 장르적 형식성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작가 정신과 실험성을 담고 있다.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시선에서 인상적인 상황이나 사건, 사고 등을 어떤 형식이나 틀에 구애받지 않은 일기체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극도의 간결한 문장을 구사하여 순간적 인상을 즉각적으로 묘사하며, 주변의 사물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의인화하여 세상의 온갖 존재에 대한 열린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색채에 대한 예민한 통찰력으로 외부 존재에 대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무엇보다도 예술과 창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아주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나아가며 정신병동의 환자라는 다분히 우울한 상황에 처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생명력을 보여준다.

정신병동이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곳을 한정하기 위해 설정된 분할선으로서의 경계선에 의해 구획된 특별한 장소다. 그러나 정신병동에서의 미아는 병을 인정하지 않고 투쟁하며 자신의 개성이 남들에게 미친 것으로 받아들여질 뿐 자신은 예술가이며 천재, 천사, 새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아는 접경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접경지대는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경계선에 대한 개운치 않은 감정이 만들어낸 불확정한 장소로서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접경지대는 저항과 위반, 양가성과 모순이 혼재하고 문화 간 횡단으로부터 제3의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자아가 형성될 수 있는 지점<sup>17)</sup>이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으로 대별되는 접경지대로서의 정신병동에서 미아는 정상과 비정상을 넘나들며 대항한다.

원네는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입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16) 원네 순 뢰에스는 1975년 생후 7개월에 쌍둥이 오빠와 함께 노르웨이로 입양되었고 4년 동안 정신병동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아침으로 꽃다발 먹기』로 2002년 노르웨이 도서상 재단이 수여하는 브라게 문학상을 수상했다. 2006년 번역 출간된 책의 후기에서 '5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해서 생부, 생모, 여동생을 만났다'고 썼다.

17) 노승희, 「접경지대」, 『여/성이론』 9호(2003), 46쪽.

않지만 주인공 미아는 어떤 식으로든 혼란스러운 가족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자신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입양아 출신의 유색인종/여성/작가 쉰네는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주인공 미아에게 투사하고 정신병동으로까지 밀어붙임으로써 자신의 고뇌와 치열하게 맞서고자 한다.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백인 의사/가부장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은 백인 사회/가부장제도/남성중심사회에서 병자로 명명된/딸/여성의 인생을 주재하는 권력의 위상을 명백히 한다.

“나는 아침으로 꽃송이를 먹는다. 이제 나는 붉은 장미가 될 거라는 생각에 만족감이 들었다. 마치 간고기와 하얀 치즈와 말린 양고기 그리고 갈색의 빵을 먹으면 그렇게 되듯 나는 간고기 덩어리가 되기를 싫었다. 차라리 장미가 되고 싶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내 속을 채우고 싶었다.” 이러한 식물지향성은 신체의 양분보다 영혼의 양식을 더 중시한 작가의 지향성 곧 동물적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포육과 상생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는 식물지향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작가의 첫발자국을 상징한다. 이는 입양아/정신병자라는 극단적인 아웃사이드에서 고통과 격동의 시기를 거치고 마침내 작가로서 자기의 말하기/글쓰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쉰네의 작품은 입양인 체험을 소재로 사용하는 대신 정신병동에 입원한 소녀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자아와 세계의 단절과 소외를 천착함으로써 한국 입양인 문학이라는 특정한 범주를 넘어서서 세계의 현대인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사적인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체험으로 보편화됨으로써 특정한 부문에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유럽문학의 한 부분으로 온당한 평가를 받고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입양인 여성문학의 한 지표가 된다.

## 2) 신선영-콜리주 형식의 실험

산문류가 자전적이고 직접적이어서 감상적인 경향을 보인다면 시는 기법과 형식의 실험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고 길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 이념적 내용을 담거나 새로운 방법적 시도의 측면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실험성은 난해함으로 이어지고 독자의 읽기/이해를 어렵게 하거나 방해한다. 저자와 독자의 거리를 두는 이러한 글쓰기는 저자의 어려운 글쓰기 과정만큼이나 독자에게도 공들여 읽기를 주문한다. 시에

서 공감을 통한 정서의 환기를 요구하는 대신 일종의 소외효과를 통해 문제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 번 읽고 생각하는 지적인 과정을 통해 이성적으로 교유하기를 원한다.

신선영<sup>18)</sup>의 『검은색으로 가득한 치마(Skirt Full of Black)』는 이주여성의 생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의 사건들과 목소리들의 거대한 협주라 할 수 있다. 날카로운 정치적 인식과 상상력, 그리고 잊혀지고 기억된 언어의 감각 등이 눈에 띄는 이 시들은 개인적 암시이며 일종의 사회적 비평<sup>19)</sup>이다. 기독교와 불교와 무속, 혹은 다른 문학 작품들에서 연상된 파편들을 콜라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시들은 풍부한 문학적 토양과 열정적인 상상력을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수법을 창조하고 있다. 이같이 서구의 언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문화적 혼종성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 혹은 인종을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매체가 될 수 있다.<sup>20)</sup> 시인은 서구의 언어를 통해 모국의 문화 유산을 새롭게 구성해 내는 과정에서 다문화 세계의 디아스포라적 주체로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다른 문화 체계 속의 한국인 독자에게는 매우 낯설고 난해한 문학 작품으로 존재한다. 한 편의 시는 파편화된 단어들의 나열로 콜라주되어 있어 완결된 의미를 생성하지 않고 문학 작품에서 단어들을 정리하여 의미를 꿰맞추려는 일반적 시도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신선영은 시의 도입부에서 단군신화와 굿 장면을 인용하고 있다. 한국의 무속은 특히 현실에서는 억압받는 존재인 여성이 주체가 되어 행사를 주관한다는 점과 고난의 삶을 인종과 희생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전복의 장이라는 점에서 한국 입양인 여성들의 이산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중군위안부』와 『딕테』에서 이미 사용된 바 있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탐구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여성문학의 한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계 여성의 이산문학은 탈식민의 저항적 문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21)</sup> 이들은 민족문화와

18) 신선영은 1974년생으로 미국으로 입양되었으며 시집 *Skirt Full of Black*(2007)은 2008년 Asian American Literary Award 시부문 수상작이다. 한국어로 출간되지 않았으며 분고 인용부분은 필자의 번역에 의한 것이다.

19) 제인 정 트랜카, *Skirt Full of Black* 표지 서평(2007).

20)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여이연, 2001), 65쪽.

21) 임진희, 앞의 글, 251쪽.



민중문화와 같은 한국 고유담론으로의 회귀에서 한국적 저항의 가능성을 찾는다. 한국의 무속, 민담, 설화는 저항의 표징으로 한국의 이산문학이 세계문학사에 기여하는 대안 담론으로 기능한다. 역사적 상흔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하위주체는 한국인 공동의 기억, 민담, 민요, 신화, 혼령,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한 윤회와 순환을 포함하는 한국적 상상력에 의존한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탐구는 신선영 시의 핵심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한 특별한 언급들로 이루어진 일련의 시들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거리를 더욱 명확하게 해주면서도 그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은연 중의 유대감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읽고 쓰고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 체계로서의 문자가 낯선 의미가 담겨진 시각적 매체로 정의되고 표현되는 순간 언어의 경계는 새로운 지경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한국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의 제목인 '거대한 알타이어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여러 번 언급되지만 특히 5장에서 한글 자모에 대한 독특한 해석 부분에서 절정을 이룬다. '한국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영어와 같은 유럽의 언어와 구조적으로 대조를 이룬다'를 시작으로 한글에 관한 책이 인용되고 한글 자모표가 제시되고 한자에 대한 오래된 논쟁에 대한 언급까지 있을 정도로 한국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

말해지지 않은 거대한 알타이어여 가라. 씌어지지 않은 성이여 가라.  
꽃, 필력임. 깃발이여 가라.

알타이어, 성, 꽃, 필력임, 깃발 등 나열된 단어들은 쉽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선영이 영향을 받은 작가들 중 한 사람인 김명미의 시를 고려하면 의미의 연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김명미의 〈깃발 아래서〉가 주로 시민의 권리와 민족적 정체성을 주로 천착<sup>22)</sup>하고 있으며 한국과 한국사를 향하면서도 미국이라는 현실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질감과 괴리에 관한 갈등에 관해 쓰고 있다면 이 시에서 인용한 깃발이라는 단어는 이상의 요소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라'는 단어는 사실 가지 말라는 의미의 반어적 표현이며

22) 강현이, 「고국을 다시 기억하기」, 일레인 김 편, 박은미 역, 『위험한 여성』(삼인, 2005), 307쪽.

한국어가 속한 알타이어나 한국과 한국사에 대한 거리를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그 거리를 바람에 날려버리고 싶은 애증과 갈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한글 자모에 대한 시들은 시인에게 있어 한글이 그저 낯선 나라의 기호에 불과한 해독 불가능의 언어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애써 그에 관한 기억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의 산물이자 자기가 살아온 생의 궤적 안에서 연결 고리를 엮어보려는 타자의 언어이다.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각종의 다양한 언어들을 자신의 상상력 안에서 한 자리에 모아놓은 이 시들은 이산자아로서의 파편화된 기억과 생의 교직에 의한 결과물이다.

이외에도 거의 모든 시들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들의 건너뛰기와 그 사이의 간격과 침묵은 의미의 해독을 방해한다. 쉽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단어들의 나열은 그 여백을 통해 오히려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 연결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그 낯선 것들은 통상적인 의미 대신 다르게 읽히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한 결핍과 부재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이면에서 긴 세월 억압당하고 침묵당해 온 타자들의 화법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일상의 의미와 독법을 거부하는 새로운 말하기 방법 곧 침묵의 정치성이라 할 것이다. 여성의 발화 행위 안에서 침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성의 베일쓰기처럼 결핍, 두려움 등을 여성적 영토라고 파악한 남성들이 규정한 맥락으로부터 침묵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때라야만 침묵은 전복적<sup>23)</sup>일 수 있다. 말하려 하지 않는 의지로서의 침묵, 철회하려는 의지로서의 침묵, 자신의 언어로서의 침묵은 여성문학에서 발화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모국어와 잊고 추방된 자로서 이산자아로서의 힘겨운 발화는 계속된다.

합법적으로 버려진/고아/양자/입양을 위한 유자격자/이민/합법적인 외국인 거주자/귀화인/외국인 등록번호 A35300104/미국 태생으로 받아들여진/중국인으로 받아들여진/결혼 후에도 내 소녀 적 이름

한국 땅에서 포기된 아이가 미국땅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표현한 이 시는 아주 복잡한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미국 태생으로

23) 트린 민하, 이은경 역, 「너 아닌/너 같은」, 『여/성이론』 9호(2003, 여이연), 317쪽.

받아들여지지만 그럼에도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산 자아의 혼란을 보여준다. 결혼 후에도 자기 이름을 갖는 한국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시인은 한국이름 신선영을 사용한다. ‘한국전쟁이 치러지는 수십 년 동안, 남한은 선진국에 아이들을 공급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 / ‘아버지들은 드물다: 발견된 영아’ / ‘출산율이 낮아졌다: 아이들의 구조적인 공급’ /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미국은 모든 입양의 거의 반을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해외입양아를 제일 많이 받아들인 나라이다’ 등 입양과 관련된 구절들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개인의 체험적 사건은 건조한 어법 속에서 객관화되고 기아와 입양이 단지 어머니 아버지라는 혈연관계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 시들은 정서적으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지 않는 대신 입양 문제를 이성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우리는 모두 두 개의 언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유년기의 언어, 그리고 임종기의. 신이시여,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게 하소서’에는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다른 언어권 내에서 살아가는 이산자아의 고통이 드러나 있다.

제목인 ‘검은색으로 가득한 치마’의 검은색은 일반적으로는 죽음을 비롯한 부정적인 의미의 색이고 치마는 여성을 상징한다. 시집의 제목이 ‘Black Skirt’가 아닌 ‘Skirt Full of Black’ 곧 ‘검정색 치마’가 아니라 ‘검정색으로 가득한 치마’ 인 것은 검은색을 더욱 강조한 표현이다. 곧 불행으로 가득한 여성의 일생 혹은 역사를 의미하는 제목이라 할 수 있다. 제3세계/황인종/여성/입양인/작가라는 매우 복잡한 정체성 구성요소들을 가진 신선영은 이산자아로서 살아온 여성으로서의 삶을 검정색/치마로 집약하여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작품 <22세기까지>에서 헨젤과 그레텔의 동화를 인용하면서 22세기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한다. ‘나’는 ‘유년시절을 내려놓고’ ‘모성성을 내려놓고’ ‘당신이 나를 기다린다면, 나는 당신을 22세기에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과거의 모든 상처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한 의지적인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 지점에 오면 검은색 치마는 부정적 과거를 넘고 어둠을 극복하고 긍정과 희망을 담은 ‘벗진 검은색’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산자

아의 기나긴 혼란과 불안을 흔들리는 단어들의 나열로 표현함으로써 분열되고 방황하는 이산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던 일단의 시들은 그 기나긴 여정 후에 비로소 세계를 열 '마스터키'를 만들고 있는 자아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언어의 마스터키를 '매끄럽게 갈'면서 22세기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리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3) 마야-침묵하는 타자에서 말하는 주체로

마야 리 랑그바드<sup>24)</sup>의 시집 『홀거 단스크를 찾아라(Find Holger Danske)』<sup>25)</sup>는 4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특히 1장에서는 자기의 입양관계 서류와 함께 생모와 양모, 그리고 입양인들에게 각각 20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홀거 단스크는 평소에는 늘 자고 있지만 덴마크가 진정으로 위기에 빠지면 잠에서 깨어나 조국을 지켜준다고 하는 전설적 영웅이다. 입양인으로서 살아온 위기의 날들에 언젠가 덴마크의 영웅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동화적 마음을 담은 제목이다. 그러나 시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환상적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유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인 여성으로 성장한 주체로서의 화자를 만날 수 있다. 홀거 단스크는 햄릿 성에서 잠자고 있는 국민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잠들어 있는 자아를 의미한다.

#### A. 낳아주신 엄마께 드리는 질문 20개

17. 엄마는 저를 왜 입양보내야 했나요?

가. 경제적인 이유? 나. 사회적인 이유? 다. 개인적인 문제?

이것은 대부분의 입양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생모들은 침묵하는 하위주체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과거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전히 숨겨야 할 일이며 임신은 순결하지 못한 육체의 징표이자 기아는 모성성이 결여된 부도덕한 어머니를 의미한다. 생모들은 이제 서구적 가치관에 젖어 있으며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적인 여성이 되어

24) Maya Lee Langvad의 한국이름은 이춘복이며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나 생후 2개월에 덴마크로 입양되었다. 덴마크어 시집 *Find Holger Danske*(2006)를 출간했고 막스 프리쉬의 *Fragebogen*(1992)을 덴마크어로 번역한 *Sporgeskemaer*(2007)를 출간했으며 자신의 시는 질문들로 이루어진 이 시 형식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25) 이 시집은 덴마크어로 씌어졌으며 2007년 서울에서 열린 해외입양인대회의 시낭송 행사를 위해 1부가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나타난 딸들 앞에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회와 국가가 분담했어야 할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입양을 사회적 문제로 보아야만 생모들은 하위주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의 차원에서 단지 부분적으로 정서적 이해와 공감만을 나누어 가지는 모녀관계는 재회 이후에도 갈등을 반복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계속된다.

B. 입양엄마께 드리는 질문 20개

1. 엄마는 저를 왜 입양했나요?

가. 임신이 안 돼서

나. 임신을 원하지 않아서

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라. 엄마의 외모, 성격, 대대로 내려오는 병이나 다른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마. 입양하는 것이 특이해서?

바. 그 밖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2. 만일 엄마가 저를 입양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보신다면: 왜 다른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사업을 택하지 않으셨죠?

비서구 아이들의 서구로의 해외입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의 식민주의적 현실과 인종적 위계질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서양과 식민지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명백히 반영<sup>26)</sup>하는 것이다. 해외입양은 동양 아이들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서구인들의 엘리트주의, 휴머니즘과 도덕적 권위, 시민성과 박애정신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목표 및 저하하는 출산율과 서구 아이들의 공급 불가능이라는 현실적 상황과 맞물려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지속되었다. 마야의 시들은 그러한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과 양모가 처한 오늘/여기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원한다. 정서적으로는 자기가 진정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원해진 아이라는 사실을 바라는 마음을 기반으로 하며 이성적으로는 입양에 대한 서구인들의 허구적 도덕관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을 던진다. 진실로 선한 일을 하기 원했다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불행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 분명한 입양을 택하는 대신 제3세계의 미혼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과거의 생모와 현재의 양모에 대한 질문을 거쳐 가장

26) 토비아스 휘비네트, 앞의 책, 38쪽.

중요한 입양인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간다.

C. 입양인에게 주는 질문 20개

1. 당신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11. 당신은 자신이 귀한 아이로 태어났다고 보세요?
20. 당신도 아이를 입양할 건가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은 모두 입양과 관련되어 있다. 입양이야말로 그들의 삶을 결정지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것이다. 출생 후 포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춘기의 방향은 적지 않은 고통을 주었다. 이질적인 사회에서 언제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며 본질이 아닌 외모로 눈에 띄는 생활을 하는 동안 다수의 입양인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sup>27)</sup>을 보아야 했던 시인의 시선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질문을 던진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입양이라는 문제적 현실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만은 없는 이들은 다시 입양을 할 것인지 여부를 자문해 본다. 이것은 입양을 통해 지적인 여성으로서의 시각을 갖게 되기까지의 현실이 있었음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미야의 시들은 감정이 배제된 이성적 목소리로 자신의 현실을 객관화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침묵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발적 발화의 주체가 된 하위주체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 인종, 문화적으로 주변부에 속하고 자본의 논리에 희생당하고 착취당하면서도 자본의 논리를 거슬러갈 수 있는 저항성을 갖기 때문에 하위주체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이같이 해외 여성 입양인들의 문학은 성적, 계급적, 인종적,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특수한 현실에서 연유하는 저마다의 고유한 경험을 주체적인 목소리로 재현함으로써 서구의 획일적인 문화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이는 '정체성의 정치'의 관점이며 입양인 개인의 일상적인 삶, 여성의 몸과 내부에 자리잡고 있지만 잘 표현되지 않았던 느낌과 감정들을 중시하고 묘사함으로써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sup>28)</sup>이라는 명제

27) 한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으로 입양된 해외입양아의 자살률은 스웨덴의 일반 청소년보다 네 배나 높다고 밝혀졌다. 현덕 김 스코콜룬트, 허서윤 역, 『아름다운 인연』(사람과 책, 2009), 187쪽.

28) 태혜숙, 앞의 책, 113쪽.

로 나아가게 한다.

### III. 결론

해외 여성 입양인들의 문학은 다양한 정체성 변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혼란스러운 이산의 과정에서의 타자와의 갈등과 변화를 거치면서 점진적인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내용상의 주된 특성은 정체성의 확인과 자아의 추구로 요약할 수 있고 외적인 표현에서는 자서전적인 글쓰기를 많이 선택하며 때로는 형식적 실험을 통해 이산자아의 새로운 창조의 모색을 보여주기도 한다.

입양인들은 처음에는 '바나나'로 상징되는 제1세계의 유색인종으로서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백인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미국인 혹은 유럽인으로서의 국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동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동화의 과정이 쉽지 않고 오히려 거부당하면서 타자/소수자/이방인으로서의 자아를 돌아보게 되고 경계인의 위치에서 주체를 객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모국 방문과 가족찾기가 이루어지고 자기 이름의 의미와 발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뿌리와 출발지점을 알게 되면서 배척하고 외면해야 할 객체가 아닌 진정한 주체로서의 자아를 찾게 된다. 고통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객관화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갖고 저항하는 주체/말하는 주체가 된다. 그리고 복잡한 요소들과의 서열을 해체하고 어우러짐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하게 되어 확장된 자아인식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자아로 거듭나게 된다.

이들은 다른 민족의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와 함께 문화적 혼종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집경 지역의 삶에서 그리고 사이의 공간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화적 작업은 정체성의 새로운 징조들을 형상화한다. 오늘의 세계는 전 지구적으로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개념이 필요하고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서 민족의 의미를 새로 구성하고 복잡한 삶의 당혹감을 버터내는 과정을 형상화하는 문화적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디아스포라의 미학적 실천<sup>29)</sup>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학이 보여주는 중심도 주변도 아닌

경계에서의 글쓰기와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은 민족적 상상력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창출되는 새로운 의식과 표현은 지구화 시대의 독창적 문화양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입양아들의 영어/유럽어로 글쓰기는 문화적 혼종성을 바탕으로 민족 혹은 인종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주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입양인의 문학을 온당하게 분석 평가하려는 거의 최초의 시도이다. 개괄적인 성격을 갖는 이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 개별적인 문학 작품들에 대한 보다 정직한 분석을 하는 한편, 더 많은 작가들의 문학을 연구하고 나아가 문학 이외의 영화, 연극 등 다른 장르의 문화 예술 연구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본고에서 미흡했던 의미가 점차 충족될 것으로 기대한다.

---

29)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여이연, 2001), 47-48쪽.



## 참 고 문 헌

- 김순애(1970년생, 미국으로 입양), *Trail of crumbs: Hunger, Love, and the Search for Home*. 2008. 강미경 역, 『서른 살의 레시피』, 황금가지, 2008, 1-565쪽.
- 마야 리 랑그마드(이춘복, 1980년생, 덴마크로 입양), *Find Holger Danske*. Borgen, 2006(한국 미출간), pp. 1-62.
- 미희 나탈리 르부안느(조미희, 1968년생, 벨기에로 입양), 『나는 55퍼센트 한국인』. 김영사, 2000, 1-209쪽.
- 원네 슌 피에스(지선, 1975년생, 노르웨이로 입양), *A spise blomster til frokost*. 2002년 노르웨이의 브라게 문학상 수상. 손화수 역, 『아침으로 꽃다발 먹기』, 문학동네, 2006, 1-271쪽.
- 신선영, (1974년생, 미국으로 입양), *Skirt Full of Black*. Coffee House press, 2007(한국 미출간), 2008년 Asian American Literary Award 시부문 수상작, pp. 1-104.
- 아스트리드 트룟제(박서여, 1970년생, 스웨덴으로 입양), *Blod ar tjockare an vatten*. 1996. 아우구스트 상의 후보작에 오른 베스트셀러. 최선경 역, 『피는 물보다 진하다』, 석천미디어, 2001, 1-320쪽.
- 제인 정 트렌카(정경아, 1972년생, 미국으로 입양), *The Language of Blood*. 2003년 반그앤노블이 '신인작가'로 선정, 2004년 미네소타 북어워드 '차서진, 회고록 부문'과 '새로운 목소리 부문' 수상. 송재평 역, 『피의 언어』, 와이켈리, 2005, 1-325쪽.
- 케이티 로빈슨(김지윤, 1970년생, 미국으로 입양), *A single square picture: Korean Adoptee's Search for Her Roots*. 2002. 최세희 역, 『커밍 홈』, 중심, 2002, 1-336쪽.
- 강현이, 「고국을 다시 기억하기」. 일레인김 편, 박은미 역, 『위험한 여성』, 삼인, 2005, 307쪽.
- 김도현, 「해외입양, 아동복지인가 아동학대인가」. 프레시안, 2007. 5. 14.
- 노성숙, 「사이렌과 침묵의 노래」. 여이연, 2008, 34-115쪽.
- 노승희, 「접경지대」. 『여/성이론』 9호, 2003, 40-46쪽.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5-7쪽.
-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147-256쪽.
- 임진희, 「한국계 미국 여성문학에 나타난 포스트식민적 이산의 미학」. 『여/성이론』 9호, 2003, 244-251쪽.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14-65쪽.
- \_\_\_\_\_, 「전 지구화, 이산, 민족에 관하여」. 『여/성이론』 9호, 2003, 113쪽.
- 토비아스 휘비네트, 뿌리의집 역, 『해외입양과 민족주의』. 소나무, 2008, 23-38쪽.

트린 민하, 이은경 역, 「너 아닌/너 같은」. 『여/성이론』 9호, 여이연, 2003, 317쪽.  
『한겨레21』 760호, 2009. 5. 18, 50쪽.  
현덕 김 스킨클린트, 허서윤 역, 『아름다운 인연』. 사람과 책, 2009, 187쪽.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해외 여성 입양인의 문학을 분석 평가하고 한국 예술사에 자리매김하려는 거의 최초의 시도로, 70년대 이후 태어나 미국과 유럽으로 입양된 여덟 명의 여성 작가의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제1세계 속의/제3세계 출신/유색인종/여성/작가라는 다층적 지위 구성 요소들에 기반을 둔 이들의 문학은 복잡한 정체성을 표출하게 되고 그러한 혼종의 정체성은 다문화 시대의 디아스포라 자아로서 새로운 문학 창조의 주체가 된다. 내용상의 가장 주된 특성은 정체성의 확인과 자아의 추구라고 할 수 있고 외적인 표현 양식에서는 대체로 자서전적 글쓰기를 많이 선택하고 때로는 형식적인 실험을 통해 이산자아의 창조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들은 타자/소수자/이방인으로서의 자아를 확인하고 경계인의 위치에서 주체를 객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갖고 말하는/저항하는 주체가 된다. 그리고 어우러짐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하게 되고 확장된 자아인식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자아로 거듭나게 된다. 이들의 문학이 보여주는 중심도 주변도 아닌 경계에서의 글쓰기와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은 문학과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들의 새로운 의식과 표현은 지구화 시대의 독창적 문화양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투고일** 2009. 10. 4.

**수정일** 2009. 12. 2.

**게재 확정일** 2009. 12. 4.

**주제어(keyword)** 해외입양인 문학(overseas adoptee's literature), 정체성(identity), 이산(diaspora), 하위주체(subaltern), 혼종성(hybrid), 타자(the other), 경계인(the periphery)